

인크로스 (216050/Not Rated/CP:41,400원)

Comment

백준기 (02-768-7541)

다윈(Dawin)의 가치에 주목하자

인크로스는 주력 사업인 미디어렙 외에도 동영상 광고 플랫폼인 다윈(Dawin)을 운영 중. 동사의 다윈 서비스는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광고 타겟팅이 가능하며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비를 효율적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장점 보유. 다윈은 동영상 광고 시장 성장으로 차기 성장동력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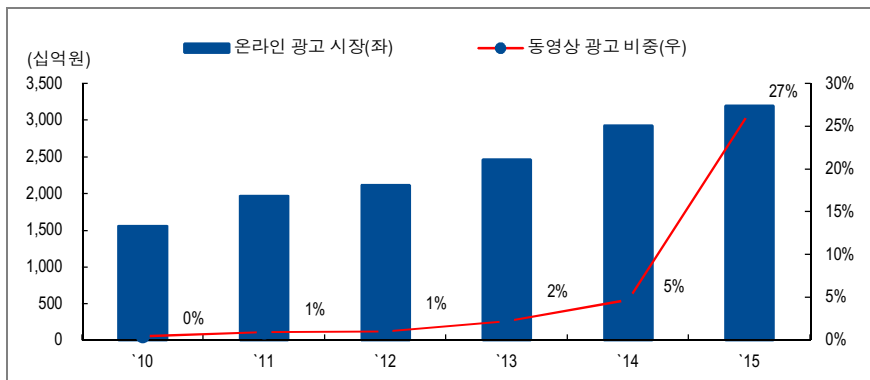
• **다윈(Dawin)은 매체의 동영상 광고를 효율적으로 판매해주는 플랫폼**

- 인크로스의 미디어렙 사업은 뉴미디어 성장으로 인해 지속 성장이 예상. 한편 동영상 광고 시장을 목표로 시작한 플랫폼 사업 다윈은 미디어렙 사업 대비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전망. 그 이유는 1) 동영상 광고 성장률이 '16년~'20년 연평균 30% 이상 기대되고, 2) 파트너사(NHN엔터)와의 데이터 제휴로 인해 경쟁사 대비 양질의 고객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
- 동영상 광고 시장은 네트워크 기술 진화와 동시에 고품질 콘텐츠의 소비로 급성장 중. 다윈이 적용하고 있는 CPCV (Cost Per Click or View)기술은 광고주로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해 고성장의 한 요인
- 기존에는 Skip 버튼을 적용한 반응형 광고만 제공하고 있었으나 내년 강제노출형 광고를 론칭할 예정. 이에 퍼포먼스 광고주 기반에서 자금력이 우수한 브랜드 광고주 기반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 다윈은 2016년 매출액 100억원(+59.3% y-y), 2017년 173억원(+72.9% y-y)을 기록해 높은 성장을 이어갈 전망

• **다윈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현 주가는 동종 업종 내 저평가**

- 미디어렙을 비롯한 뉴미디어 광고 시장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모바일 시장 성장과 더불어 올드미디어 광고 시장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인크로스의 현 주가는 2017년 기준 PER 15.2배로 업종 내 저평가되어 있고 다윈의 성장성을 감안할 경우 투자 매력이 높다는 판단

고성장 중인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



자료: 온라인광고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 15% 초과
 - Hold : -15% ~ 15%
 - Sell : -15% 미만

-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기준)
 - 투자의견 분포

Buy	Hold	Sell
78.3%	21.7%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인크로스"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